

## 바울의 기도

성경말씀: 엡3:14-21

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?

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? 죄들을 제거하시고 구원을 주시려고, 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. 구약의 유대인들: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김, 사실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함.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함. 행10장에서 고넬료가 성령님의 침례를 받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람 행15장 안디옥 교회, 유대의 율법주의자들,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착각 사도 바울의 증언: 엡2:1-10, 과거의 무리 모습, 진노의 자녀들

11-19,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(18), 바울은 이것은 신비(미스터리)라고 말함,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가! 3:1-6 신비의 핵심(6절), 바로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여기에 미쳐서 일생을 바치다가 지금으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(3:1), 자기를 복음의 사역자라고 말함(3:7), 섬기는 자, 고전10:16-17 3:8-10, 하나님은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알리려 하심. 그 지혜의 핵심,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, 천사는 창조된 존재들로 전지하지 않다. 베드로는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자 했음을 보여줌(벧전1:10-12).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짐(히1:14).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한다(고전6:3). 천사들이 우리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(고전4:9).

악한 천사들도 마찬가지로, 사탄은 성경을 알고 구약을 통해 구원자가 언제, 어떻게, 어디에 오시는지 알고 있다. 또 사람의 구속을 위해 오시는 것도 알고 있다.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. 그것은 교회의 신비이다. 특히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. 즉 교회의 신비가 내포됨.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의 복음 선포를 기억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. 행19:9-10, 에베소의 두란노 학교 두 해 동안 복음 선포를 하자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자들 (유대인, 이방인 모두)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, 그 지역을 말씀으로 뒤집어엎음 이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생각하며 교회의 신비에 대해 강론한 뒤 그들을 위해 기도 ...〈바울의 기도〉

### 바울의 기도의 초점

바울의 기도는 엡1:15-23, 빌1:9-11, 골1:9-12에도 있다. 그의 기도의 특징은 속사람의 부흥에 대한 것이다. 이 세상에서의 만수무강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적 상태의 부흥이 기도의 핵심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. 그러나 속사람의 부흥이 있으면 겉 사람의 행복은 따라온다는 것이 그의 믿음(마6:33).

### 바울의 기도의 자세와 대상

14-15: 기도의 자세, 무릎을 꿇고 기도함,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, 성경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 어떤 명령을 주지 않는다. 아브라함은 서서(창18:22), 솔로몬도 서서(왕상8:22), 다윗은 앉아서(대상17:16), 누워서,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(마26:39), 손을 들고, 다양하다.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다. 겸손히 나가야 한다.

누구에게 기도하는가: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기도한다.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? 예수님의 인성으로 볼 때는 아버지,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,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. 그러므로 모두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. 우리 모두 아버지의 성(family name)을 받아 한 가족이 되었듯이,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은 원래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다.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(요1:12). 창조의 측면에서는 모두의 아버지, 구원의 측면에서는 구원받은 자들만의 아버지

## 바울의 기도의 내용

16-19: 총 4가지가 들어 있다. 서로 연결되어 있다. 망원경

(1) 강건함(16), 구원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(롬8:9).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(파워)이 있어야 한다(행1:8).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상령님의 권능 가운데서 행하셨다(눅4:1, 14). 현시대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을 위한 단 한 가지 자원: 성령님의 파워 이 파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다. 이것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것이다. 아버지가 100억 부자, 만원을 주면 자기 재산에서 일부를 준 것이다. 그런데 1억, 10억을 주면 그 재산에 따라 비례해서 주는 것이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비례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.

이 권능은 속사람에게 주어진다. 속사람은 하나님이 거하면서 일하시는 장소. 구원받기 전에는 속사람이 죽어 있다. 당신은 어떤가? 속사람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훈련을 받으며 또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먹어야 한다. 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지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(고후4:16).

(2) 믿음의 깊이(17): 거한다, 뿌리를 내린다, 터를 잡는다. 이들은 성도들이요,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자들이지만 바울은 이들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적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였다.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점점 더 성장해서 엡4:13을 이루어야 한다. “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다”, 이제는 악한 교리나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곳곳이 서야 한다. 영국 속담 “강한 바람은 강한 선원을 만든다.” 뿌리는 내린 강건한 교회

(3) 내 것으로 꼭 부여잡는 것(comprehend, 18-19):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, 여러 뜻이 가능하다.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, 땅은 그분의 발발침, 땅은 우주 공간의 중심이다. 성경대로 믿으면 땅을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(천동설). 너비, 길이(가로, 세로), 깊이 땅을 중심으로 밀, 높이 위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무한대, 그것을 만든 분의 무한대, 그분의 구원의 무한대, 그분의 충만하심의 무한대, 이것을 내 것으로 부여잡으라. 교회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.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하라(히11장의 믿음의 사람들).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꼭 부여 잡아야 한다.

그리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.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.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는가? 이 위대한 차원을 기억하라.

(4) 충만하라(fullness):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. 그래서 채워져야 한다. 그래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 한다. 그것은 곧 성령님의 채우심이다. 뽕뽕한 풍선이 되어야 한다.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(엡4:13).

## 결론

우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이다. 이것은 숨겨진 신비로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드러났다. 심지어 천사들도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. 이 귀한 교회에 은혜로 값없이 속하였으므로 (1) 속사람의 강건함, (2) 믿음의 깊이, (3) 무하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여잡아야 한다. (4)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야 한다. (5)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.